

‘세계 김밥·소금 페스티벌’ 9-11일 여수서 열린다

김·천일염 활용 체험·공연·판매 한자리

전남 김 생산 전국 78%...수출도 9배 ↑

정호영 셰프 쿠킹클래스 등 행사 다채

‘2026 전남광주 세계 김밥&소금 페스티벌’이 오는 9-11일 전남광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지역 대표 수산물인 김과 천일염을 비롯해 다

양한 K-푸드를 알리고, 체험·공연·먹거리·판매 등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국내 김 생산량의 78%를 차지하는 전남의 강점을 살려 김의 생산부터 가공·수출까지 전 과정을 소개하고, 다양한 김밥 콘텐츠를 선보인다. 천일염의 역사와 생산 과정, 식품적 가치를 알리는 전시·체험 프로그램과 심포지엄도 진행한다.

행사장에는 ▲김밥존 ▲천일염존 ▲공연존 ▲마켓존 ▲힐링존 등 주제별 공간이 마련된다. 아트김밥 만들기, 김·천일염 역사 전시, 지역 수

산물 판매, 쿠킹클래스, 공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일에는 TV 프로그램 ‘6시 내고향’ 현장 생방송을 통해 축제 현장을 전국에 소개한다. 김소영 작가의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와 트로트 가수 박지현의 특별공연도 펼쳐진다.

10일에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의 ‘소금 콘서트’를 통해 소금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김밥과 천일염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1일에는 정호영 셰프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가 열린다.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진행되며, 회차별 20팀을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참가자들은 전남광주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다.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혜택도 마련했다. 섬박람회 입장권 소지자가 축제장에서 천일염을 구매하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

전남광주 지역 김 수출 규모는 2015년 5천만달러에서 올해 4억4천700만달러로 약 9배 증가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글로벌 시장 수요 확대에 대응해 마른김 품질등급제 시행과 수출 포장기

술 고도화, 해외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김과 천일염을 비롯한 지역 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박영재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축제는 가족이 함께 김과 천일염을 직접 보고, 만들고, 맛보면서 전남광주의 바다와 수산물을 경험하는 자리”라며 “축제에서 느낀 즐거움이 전남광주 수산물에 대한 관심과 소비로 이어지도록 알차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추억의 총장축제...그 시절로 'GO' 제22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가 개막한 7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신서석로 일원에 마련된 '추억의 테마거리' 개막식이 열려 연기자들이 옛 모습을 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개관 7개월’ 남도의병역사박물관 10만명 돌파

초중학교 단체관람·의병캠프 등 인기

전남 우수건축물 대상 건축미도 인정

영산강·코스모스 어우러져 명소 부상

지난 3월5일 문을 연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의 누적 관람객이 10만명을 넘어섰다.

7일 남도의병역사박물관에 따르면 이날 ‘바람의 테라스’에서 10만번째 방문객을 맞이하는 기념행사를 열고,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했다. 10만번째 관람객에게는 축하 패넌과 박물관 홍보 기념품을 전달했다.

10만번째 관람객으로 선정된 황정현 (서울 거주)씨는 “뜻깊은 행사의 주인공이 돼 기쁘다”며 “박물관 건립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고, 특히 탁 트인 영산강의 경관에 반해 꼭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물관은 개관 이후 평일 평균 300명, 주말 1천200여명이 찾는 등 꾸준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초·중학교 단체 관람 예약이 잇따르면서 청소년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름방학 기간 운영한 의병캠프도 남도의병 유스호스텔과 연계한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었다.

건축적 가치도 인정받았다. 박물관은 ‘2026년

전남도 우수건축물’ 심사에서 공공기관이 시행·조성한 공공부분 대상에 선정됐다.

박물관 외벽은 임진왜란부터 대한제국까지 국난 극복에 앞장선 남도의병을 상징하는 3만3천개의 알루미늄 패넌로 둘러싸인 ‘키네틱 파사드’로 조성됐다. 역사적 정체성을 담은 건축물과 시민 편의시설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다.

박물관 카페테리아에서는 영산강과 다아뜰 일원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특히 가을을 맞아 다아뜰에 만개한 코스모스가 영산강과 어우러지면서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기수희 기자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

“통합특별법에 해양·농생명산업특구 특례를”

윤명희, 중남권 특화산업 거점 조성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사진)은 7일 “통합특별법 개정을 통해 중남권을 중심으로 한 ‘해양·농생명산업특구’ 지정 근거와 지원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의 성공은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 권역이 가진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특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전남광주 지역은 풍부한 농수산물 생산기반과 해양수산자원, 천연물 등 훌륭한 산업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과 연구개발,



가공, 유통 기능이 분산돼 산업 간 연계와 집적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제도만으로는 전남의 해양·농생명 자원과 광주의 연구개발 및 첨단기술 역량을 연계한 전략적 산업 육성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중남권에 특화산업 육성 거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양·농생명산업특구 지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며 “산업과 투자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남권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해 통합에 따른 권역 간 발전 격차를 완화하는 가장 확실한 열쇠”라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나주 택시요금 합리화·광역버스 개선”

이은정 “나주버스 회차지 조건대로 변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은 7일 “광주와 나주 빛가람동을 오가는 택시요금체계를 합리화하고 광역버스 운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의 교통체계는 변화한 생활권과 시민들의 이동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택시가 나주 빛가람동으로 운행할 경우 시계의 합동 40%에 혁신도시 도착요금의 30%가 추가로 가산된다.



반면 빛가람혁신도시에서 광주로 이동하는 나주택시는 시계의 합동 35%만 적용된다.

나주 시내버스 997-998-999번의 광주 운행구간 개선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교통체계를 행정구역이 아닌 시민의 실제 생활권과 이동수요를 중심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나주 시내버스의 광주지역 회차지를 전남대학교 동문에서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으로 변경하고 정차 승강장을 15곳에서 21곳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KORROAD FOUN.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등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거리를 두고 일단 멈춰주세요.
보행자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